

광주일보 문예 매거진 5월호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 모습. <국립발레단 제공>



안방극장 1열에서 '꿀 관람'

길게는 6일동안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어 집안에 머무는 이들에게 '안방극장 1열'에서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을 모아 소개한다.

◆눈길 끄는 국내 공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은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를 1-6일 유튜브 채널 'GSO TV'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향이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프로코피예프의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를 그림자극으로 선보이며 광주시향 상임부지휘자 김영언이 지휘봉을 잡고, 극단 영이 참여한다.

'피터와 늑대'는 프로코피예프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작곡한 곡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할아버지 말을 안 듣는 소년 피터가 오리와 함께 무서운 늑대가 있는 숲으로 놀러가면서 겪는 이야기가 오케스트라 연주로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공연 영상은 6일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다.

국립발레단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호두까기 인형' 공연 영상을 두 차례 공개한다. 3일 오후 2시와 5일 오전 10시다.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러시아의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안무한 버전으로 2000년 초연 이후 20년간 전석 전회 매진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다. 차이콥스키의 선율에 맞춘 화려한 볼거리와 크리스마스 시즌과 어울리는 작품으로 연말 대표적인 발레 작품으로 손꼽힌다.

국립오페라단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보리스 고두노프'와 '마술피리'를 상영한다. 3일까지 볼 수 있는 '보리스 고두노프'는 러시아 작곡가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가 1872년 발표한 오페라로 가장 러시아적 색채를 보여주는 오페라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어린 왕자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인물 보리스 고두노프의 이야기를 그렸다.

4일부터 일주일간 상영하는 '마술피리'는 모차르트가 1791년에 발표한 대표작 중 하나로 '밤의 여왕' 아리아 중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끓어오르고'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다.

KBS교향악단은 2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황금연휴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공연

광주시향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국립 '호두까기 인형', 마린스키 '지젤'

영 내셔널 씨어터 '프랑켄슈타인' 상영

요요마 등 200명 참여 1일 온라인공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피터와 늑대'

에서 진행되는 무관중 연주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중 1악장,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중 2-3악장,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최수열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2015년 킨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협연한다.

정동극장은 1일 오전 11시 정동극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준모의 오페라 데이트'를 생중계한다. 뮤지컬 배우 양준모가 사회를 맡고 동명이인인 바리톤 양준모와 피아니스트 방은현이 게스트로 참여해 다양한 영화 속에서 나온 오페라,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 양준모의 오페라 데이트는 같은날 오후 8시 네이버TV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다.

대규모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은 5일까지 뮤지컬 '투란도트' 전막 실황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제13회 DIMF 특별공연 당시 버전으로 이견명과 해나가 칼라프 왕자와 투란도트 역을 맡아 열연하며 이정화가 류로 출연한다.

◆해외 명품 공연을 만나

영국 내셔널 씨어터는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니 보일 연출의 연극 '프랑켄슈타인'을 상영한다. 이 작품은 영국 드라마 '셜록' 시리즈로 유명한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미국 드라마 '엘리멘트리'로 알려진 조니 리 밀러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작품이다. 한국시간으로 1일 새벽 3시에는 밀러가 프랑켄슈타인을 연기하고 컴버배치가 피조물 역을 맡은 영상이 공개되며, 2일 새벽 3시부터는 컴버배치가 박사를 맡고 밀러가 피조물을 맡은 버전도 볼 수 있다. 영상은 공개된 날로부터 일주일간 상영한다.

뮤지컬계의 전설 로이드 엔드루 웨버는 '쇼 머스트 고 온(Shows Must Go On)'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한국 시간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자신의 대표작을 한 편씩 공개하고 있다. 2일 새벽 3시(한국시간)에는 영국 런던 로열 엘버트 홀에서 개최된 뮤지컬 콘서트 영상을 공개한다. '에비타', '갯츠', '오페라의 유령',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등 로이드 웨버의 주요 뮤지컬 작품 속 주요 넘버들을 들을 수 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불소이 극장은 마린스키발레단의 '지젤'을 1일 새벽 1시부터 24시간 선보이며 4일 새벽 1시에는 쇼스타코비치의 발레 작품 '더 브라이트 스트림(The Bright Stream)'을, 8일에는 '돈키호테'를 상영한다.

전 세계 유명인들이 참여하는 '단결을 위한 부름(The Call to Unite)'도 열린다. 참가자는 미국의 재명 음악인 린시 존스, 가수 엘라니스 모리셋, 첼리스트 요요마, 배우 줄리아 로버츠,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 200여명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사연을 나누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공연은 사이트(unite.us)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을 통해 1일 오후 8시부터 2일 오후 8시까지 24시간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첼리스트 요요마



피아니스트 김정원



내셔널 씨어터의 연극 '프랑켄슈타인'

연남향



'5·18 40주년' 특집, 문화콘텐츠 활용가능성 아픈 역사의 현장 독일 베를린 다크투어리즘

다시 오월이다.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남향' 5월호는 '5·18 40주년' 특집을 준비했다.

문학을 비롯해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 각 분야에서 창작된 '5월 광주' 문화콘텐츠를 되짚어보고, 문화자산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립미술관 등지에서 열리는 공연·전시 프로그램과 함께 '오월 광주'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작품을 살펴본다.

예향초대석 주인공은 호남의병 역사를 재정의한 사학자 홍영기 순천대 사학과 명예교수다. 일제에 맞서 일어났던 민초들은 역사에 이름들을 남기지 못하고 산화했다. 노사학연구위원이기도 한 홍 교수는 "의로운 사람들을 역사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0여 년간 의병 연구에 전념해 온 홍 원장을 순천 '만권당(樓)'에서 만나고 왔다.

가정의 달 5월, '짜짜짜짜 남도한바퀴'는 '철강'과 '항만'의 도시,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볼꽃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의 도시' 광양으로 떠난다. 구봉산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광양만 야경은 산업현장의 역동감을 느끼게 한다.

봄에 가장 맛이 좋다는 섬진강 재첩으로 식사를 하고 정매실농원에 들러 매실차 한잔 마시고 가는 것도 좋겠다. 마음껏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로운 봄날을 희망하며 광양의 '구경구미(九景九味)' 매력 찾아가본다.

'클릭, 문화현장'은 경남 김해로 향한다.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은 '홍과 건축의 만남'을 컨셉으로 한 국내 최초의 도자 박물관이다. 김해토기의 출토지라는 정체

성을 살린 콘텐츠 덕분에 지난해에만 관람객 11만 여명이 다녀가는 등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들의 주말 쉼터이자 도시를 상징하는 문화 브랜드로 자리잡은 클레이아크를 돌아보고 왔다.

문화 화제는 '슬기로운 온라인 문화생활' 소식을 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들의 일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 문화생활은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문화예술기관들이 임시휴무에 들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문화적 거리두기까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자 광주를 비롯한 국내 미술관과 공연장들은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올려 '집콕'족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난달 첫 선을 보인 과천국립현대미술관의 온라인 전시는 미술애호가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

프로야구 개막일을 기다리던 스포츠 팬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도 전해진다. 5일 무관중 개막이 결정된 가운데 KIA 타이거즈의 2020 시즌을 지켜낼 '포커페이스' 전성현 선수와의 인터뷰가 준비돼 있다.

이외에 가사문학의 진수를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답답 한국가사문학관, '한반도 평화의 숲'을 조성중인 신안군 하의도, 아픈 역사현장을 관광자산으로 변화시킨 독일 베를린 다크투어리즘, 전철역에서까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소식도 볼거리다. 대중문화평론가 배국남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중문화와 연예인' 이야기,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장르인 트로트의 인기 비결 등도 알아본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피아니스트 김동준 독주회, 7일 여수 예술마루

피아니스트 김동준(사진) 귀국 독주회가 오는 5월 7일 여수 예술마루 소극장에서 열린다.

김 씨는 이번 공연에서 봄의 화사함이 물씬 묻어나는 곡과 함께 화려한 테크닉을 감상할 수 있는 곡들을 선보인다

레퍼토리는 멘델스존의 '바르톨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작품 31',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즈', 피아노 소나타 2번' 등이다.

김 씨는 광주에 고 재학 시절 광주피아노 듀오콩쿠르 일반부 1위, 호남예술제, 호신대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 음악대 학사·전문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후 쾰른 국립 음악대 석사 과정과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독일, 미국 등에서 연주회를 가졌으며 현재 한국음악협회 여수지부 회원으로 활동하며 광주에, 창예고, 인천예고 등에 출강하고 있다. 전석 2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